

꽃마을 화재



무허가 비닐천막210 여동 태위

— 이재민 1천 5백 여명,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재산피해 1억 여원

1. 일반사항

- 화재지역 : 서초동 꽃마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 화재일시 : 1988년 10월 9일 19시 10분경(일요일)
- 발화위치 : 남쪽 도로가
- 화재원인 : 전기합선(추정)

2. 화재상황

불은 오후 7시 10분쯤 남쪽 도로가에 있는 아름꽃집의 천정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이 일대는 비닐천막 구조의 건물로 보온을 위하여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과 보온천등을 사용하였고 실내에서는 난로등 각종 난방기구와 취사용 가스렌지, 전기매선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평상시에도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불은 아름꽃집의 내부를 태우면서 쉽게 이웃 건물로 확대되었으며 매마침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천막집이 밀집된 꽃단지로 삼시간에 번졌다.



〈소실된 모습〉

가연성 천막, 스티로폼, 가구류등은 전부 연소되어 흔적도 없고 건물 구조체로 사용된 철재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3. 진화상황

불이나자 60여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임했으나 수천여평의 단지내에 소방도로가 없었고 가연성 스티로폼, 보온천, 가구류등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대되어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가정용 프로판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바람에 접근이 어려워 불은 화재발생 2시간만에 비닐천막촌 250여동중 210여동(소실면적: 약1천평)을 태우고 진화되었다.



〈연소확대의 한 요인이 된 프로판가스 용기〉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연소되었다.



〈화재피해 모습〉
사진 우하부분에 프로판가스용기가 보인다. 용기 상부에 구멍이 뚫어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피해직전의 천막집모습〉
가연성보온천, 연동, 프로판가스 용기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이 가연성 재료로 인하여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었다.

4. 피해상황

210여동의 천막집이 소실되어 3백 여가구 1천 5백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등이 불에 타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저녁식사등을 준비하고 있던 주민들은 재빨리 대피하여 사망자는 없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대피과정에서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특수건물 발화지점별 화재발생현황

(단위: 건)

발화지점	용도	4층 이상	공동주택	공장	시장	호텔	기타	합계
식당, 다방, 주점등의 홀		34		1	1		1	37
점포, 판매장		10			6		3	19
숙박시설의 객실		14				2		16
학교, 유치원 등의 교실					1		5	6
공중목욕탕		5				3		8
공동주택등의 거실		1	112				1	114
사무실		28	1					29
작업장(제조, 공정작업)		17		75			1	93
창고		6	4	11	1			22
현관, 계단, 복도		11	15	1		1		28
피트, 닥트, 샤프트		2	9					11
쓰레기장		3	2	1				6
베란다, 발코니, 다용도실			20					20
다락, 천정		7	5	2	1			15
건물외부		3		1			2	6
보일러실, 기계실		8	8	1		1	1	19
변전실, 변압, 배전반		13	5	10			1	29
부엌, 주방		9	29	1				39
기숙사		1		2			1	4
강습소		4						4
연소		31	7	4	1	1	3	47
기타		22	6	9		3	5	45
미상		3					2	5
합계		232	223	119	11	11	26	622

자 (자료: '88년도 특수건물 화재 통계)